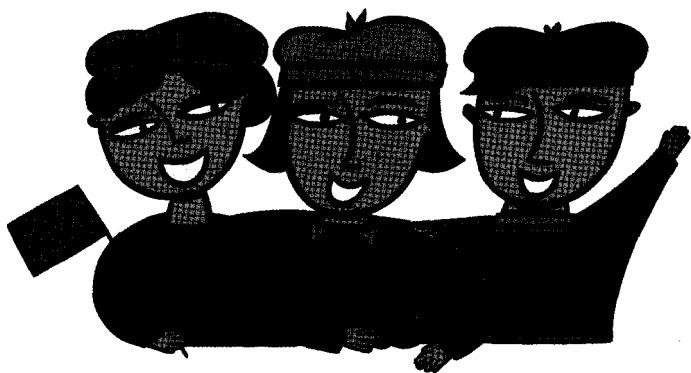


상대방 배려는 올바른 성적 주체성 형성의 첫걸음

크_김성애 · 중앙여고 보건교사



성교육의 단점은 일정한 형식이 없어서 너무 힘이 들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하며 창조적인 수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물론 고민도 있다. 학생들 자신이 진짜 고민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선생님이 준비해간 자료들만 나열하는 수업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그냥 수업시수만 때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이 늘 내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학력 신장에만 정신이 없는 학교 구조 속에서 성교육의 실자리는 어디며 가장 핵심 가치는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그 고민이 가족역동 치료 공부하면서 많이 해소되고 길이 보이는 것 같다.

자기탐색으로 자신의 문제 찾아가도록

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성적 주체성이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성적

주체성을 세워주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들이 자아정체감, 자아 존중감, 자기 개념 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우선 자기 탐색작업을 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한다.

수업시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우선 나는~~하다는 것을 20개 정도 생각나는 대로 10분 안에 써보게 하고 발표시키며 다른 사람들의 것을 들으며 자신의 것과 비교하게 한다. 이때 교사는 발표물을 들으며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꿈꾸는 것만 써놓았는지, 들으며 생각나는 것을 분석해 주는데 주로 원하는 사람 위주로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갈등과 어려움을 읽어 주려고 한다. 8명 정도 그룹으로 앉아서 서로의 장점만을 찾아서 아주 진지하게 칭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칭찬 받는 것에 어색해하면서도 기분 좋아한다.

또한 어린 시절의 첫 기억, 가족관계, 우정, 성이나 사랑에 관련된 기억들을 자신의 ID로 써서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주며 수업한다.

물론 자신을 더욱 솔직하게 생각해보고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갖고 있는 자료들을 들려주고 분석도 해 준다. 분석해주기 위해서는 선생님 자신들이 사람의 심리적 구조와 역동을 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가



부정적인 감정들은 친구나 이성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많은 걸림돌로 작용한다. 상대방이 마음 상할까봐 싫은 상황에서도 거절을 못하는 것이다. 이때 적극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교육한다. “나는 싫어요”만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떻게, 무엇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를 말하도록 한다.

무엇인지 분석을 통해 알게 되면 많이 시원해 한다. 먼저 첫 기억을 통해 중심 감정이 무엇인지, 파악해 본다.

그러한 것들이 현재 삶에서 어떤 형태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본다. 우리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감정들을 살펴보고 자신의 감정은 자신의 것이므로 스스로 책임지고 돌보도록 한다.

‘왜, 어떻게, 무엇’ 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를 말하도록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감정에만 급급한 나머지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 시절에 형성된 감정체계가 계속 반복되고 이것이 낮은 자존감의 근원이 된다. 감정 덩어리인 가족을 살펴보면 각 사람의 감정의 근원들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 물론 가족에 관해 솔직히 쓰기 힘들어 하지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자신도 보르게 그 속에서 어떤 것들이 형성되었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도록 돕는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씨티어 가족치료에서 쓰는 가족 조각기법이 있다. 이것은 여러 형태의 가족을 객관적이며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서 자신의 가족을 조각으로 해보게 하면(원하는 사람 중에서) 가족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이 보인다.

특히 기부장적인 가족구조 속에서 부모와 진정한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힘들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말을 못하고 많은 부분을 참고 지나기 때문에 감정이 쌓이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정 폭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은 친구나 이성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많은 걸림돌로 작용한다. 상대방이 마음 상할까봐 싫은 상황에서도 거절을 못하는 것이다. 그러한 자신의 문제점을 알게 하고 적극적인 자기주장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적극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교육한다. “나는 싫어요”만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떻게, 무엇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를 말하도록 한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과 상황도 배려할 수 있어야 좋은 관계도 지속되고 진정한 의사소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성적 주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것이다.

상대방이 마음 상할까봐 싫은 상황에서도 거절을 못한다. 이때 적극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교육한다. “나는 싫어요”만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떻게 무엇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를 말하도록 한다.